

사설

훈훈한 겨울을 만들자

가랑이가 다 떨어져 빙글어 간 겨울, 차가운 연말 분위기는 실종되어 가는 온정에 기대감마저 잃어가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행정, 국민의 입이라는 정치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자처하는가. 아직도 돈과 권력이 인간의 밝고 따뜻한 본성을 짓밟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니 어찌 돈과 권력에 미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리요.

지하철 요금이 언제 오르고 쌀값이 왜 오르는지 쓰레기 봉투 값은 어떻게 된 것이며 배추값 돼지값에 우는 사람은 누구인지 언론도 한마디 거론하지 않는 관심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국민의 귀도 눈도 비자금과 5·18로 숨이 막히고 가리워져 살고는 날로 심하게 가고 있다. 일반 시민이야 무시무시한 꼴 안 보고 물가 안정되고 교통 편리하면 그만이다.

올해같이 살벌한 연말도 없었으며 앞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온통 물염치한 정치인만 판치고 권력에만 눈이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소득 만반시대의 선진국 문턱에 선 5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의 자존이라 면, 불우한 이웃과 노약자를 보살필 줄 알고 서민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걱정해야 할, 가진 자들이 아닐까.

신문이나 방송은 국민의 눈이며 귀다. 보고 들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생활에 평온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생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살벌한 투기장 같은 정치소식이

장막을 치고 변화무쌍한 정치언어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싸늘한 겨울에 다가오는 연말을 맞으며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양로원·보육원·재활원 등에 살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 그들의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지정보살은 자욱문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리석어 죄 짓고 과보 받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성불하겠다고 성불도 미루었다. 또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자비로 보살피기에 바쁘다.

찾아먹고 거머쥐는 일은 내가 해야 하고 내것이라는 탐욕과 애착을 버리며, 남을 돕고 남에게 감사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할 사람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우리 민족은 본래 깨끗함을 좋아 하는 백의민족이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사는 예의를 갖춘 자손이다.

한해를 돌아보고 하늘과 땅, 물과 바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곳에 감사하자.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잘못이 없도록 고쳐 살자. 그리하여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실천하고 대승보살의 6도만행을 생활화하자.

우리의 생명은 하늘과 땅과 바람과 물로 더불어 살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이 하나라면 이웃과 나의 생명도 하나이다.

'나'라는 아상과 '내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면 우리 모두 아픔을 나누고 즐거움을 같이하는 삶의 도반이 되어 밝고 아름다운 내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마당

자원봉사지원법

최근 우리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원봉사지원법'이 법제화를 앞두고 폐기 위기에 처했다. 자원봉사지원법은 올해를 넘기면 14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법안자체가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여 제 공청회가 열리는 등 대책미련과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위한 사회자원봉사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민간봉사단체 활성화 법적토대 꼭 필요”

이 초 남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자원봉사지원법은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사회에는 기초자원봉사, 중간활동지원자, 전문자원봉사자 등 계층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자원봉사자 계층이 뚜렷지 못하다. 자원봉사지원법이 제정되면

자원봉사자의 교육, 모집, 배치, 정보전산망 구축 등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교류를 꾀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주력구구식의 단순 자원봉사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원봉사연합회는 앞으로

대규모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지원법에 의해 실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효과 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여야 이해관계 떠나 복지선진화 대책을”

최 현 숙 <삼지대 교수, 사회복지학과>

정부는 민간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한다는 취지이래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자원봉사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해 왔다. 현재 국가주도의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올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복지에 대한 활성화 정책은 충분히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처사다. 자원봉사지원법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마땅히 제정돼야 한다. 더이상 자원봉사지원법안을 미루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복지를 역

행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기본취지를 살려, 정부와 국회는 자원봉사지원법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를 한층 성숙시켜야 한다.

“공동체정신 실현하려는 의지 꺾어서야”

이 영 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모니터링>

자원봉사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 참여의식, 책임의식, 상호협조정신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선의의 봉사정신을 계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지원법이 법제정의 취지 그대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자원봉사지원법은 현재 불교계 조계종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자원봉사단체간의 원활한 지원과 교류를 앞당기는 시조가 돼야 할 것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경우 도 뜻있는 몇몇 보살들과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순수한 불교자원봉사를 실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는 언제나 고갈상태에 있는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현실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이 하루속히 제정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되고 자원봉사 대상자들에게는 안정된 자원봉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지원법이란 봉사단체 재정지원...국회심의 보류중

자원봉사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 지원기구 구성, 자원봉사자의 등록, 교육, 배치, 확인, 허가 등 담당기구 미련과 자원봉사단체의 제정과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것. 이에 여야가 선거운동지원봉사자 활용부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봉사지원

자원봉사지원법안은 올 7월 발의됐으나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법안상정에 대해 여야의 사견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지원법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80여 민간단체들이 국회의 처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시론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온통 세상이 불안집 같다.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 TV드라마가 부채질까지 한다. 역사는 후세의 사가들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하지만 요즘은 TV가 앞장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생존해 있는 당사자들로서는 여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월간조선 12월호는 이들 TV극화를 영상테러까지 비판하고 있다. 장장 27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말이다.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 드라마는 백여만 다들 그런 내용은 유사한데 약간씩 상이한 부분이 있다. 사람들은 드라마의 내용을 비교하며 비분강개하기도 하고 어느 드라마가 옳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하는 까닭에 시청률은 높아만 간다. 이들 TV극화의 내용은 제 4공화국이 출범되기 이전인 12·12와 5·18을 주 무대로 설정하고 있다.

가히 요즘의 정치판세와 어울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비리와 관련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이땅의 재벌 총수들이 몸을 움추린 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4색정당은 당파와 당파에 따라 제몫 추스르기에 바쁜 뿐 아니라 국민복은 아예 뺀 외시 한 지 오래이다. 여기에 대선자금 공개공방전이 열

을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5·18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니다로 설전을 벌일 뿐 아니라 5·18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돌연 소취하까지 해 현재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코리아 게이트를 TV드라마와 오늘의 정치현실이 어느것이 품고 어느것이 생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혼란스럽다. 내가 내비 꿈을 꾸는지 내비가 내꿈을 꾸고 있는지 모를 혼돈이다. 혼돈은 일곱구멍의 정치현실은 수천개의 구멍이 뚫린바 되어 피를 토하고 있다.

TV드라마와 '12·12 5·18' 코리아 게이트 등 드라마의 장면처럼 12·12와 5·18, 그리고 신 군부가 탱크를 앞세워 '서울의 봄'을 무력 차단한 사실은 누가 뭐라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의 업보를 받는 것이 불가(佛家)의 진리이다. 과학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어 요즘의 인과는 제트기보다도 빠르다.

개인의 업(業)도 그러하고 공업도 그러하다. 이 엄연한 인과의 법리를 부정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5·18 특별법 제정'이라는 카드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결론을 앞에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은 종점에 도착한 전차가 승객을 갈아 태우고 다시 역전한다고 놀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점에 도착하지도 않은 전차가 중간 지점에서 역전할 때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땅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와 사찰들이 있다. 성직자도 많고 수천만에 이르는 신도도 있다. 그런데 맨얼굴인 마구잡이로 함께 돌아가고 있다. 어느 사찰의 현관들까지 노 전대통령이 쓴 글이라 하여 철거 운운한 기사가 있었다. 불자들의 의견함은 이제 이땅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그저 서류에 따라 청룡열차나 타고 어지럽게 돌아가야 하는가.

5·18과 12·12를 놓고 위정자들은 앞 뒤 없는 전차처럼 단리당락에 따라 전진 후진 혹은 궤도 이탈을 하기도 한다.

정치 드라마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이 오늘의 정치현실과 맞물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5천억 비리가 그러하고 '나는 살고 너는 죽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

발상들이 그러하다. 청룡열차처럼 마구 어지럽게 돌아가는 행위가 TV 전파를 타고 오락성까지 곁들여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국방을 본연의 업으로 알고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현직 대령은 군인들의 위상과 명예가 마구 휩쓸려 사라지고 있다. 군인의 생명이랄 수 있는 사기와 패기가 놀려움을 때 과연 국방은 누가 대신 맡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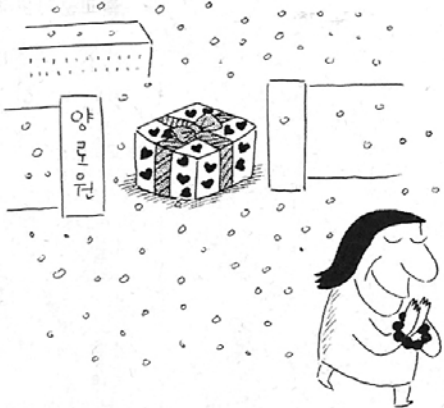
이런 때일수록 대다수 많은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 참 군인의 길을 성실히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따뜻한하고 전폭적인 성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걸음 물러서서 연기(緣起)의 잣대로 사물을 관할하고 비연(悲願)의 눈으로 저들의 참회를 풀어 안을 수는 없을까.

코리아 게이트와 제 4공화국의 주역들을 역행(逆行)보살의 화현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아쉽다. 그리고 이를 거울삼아 나를 바꾸는 자성(自省)의 외침이 없음을 못내 아쉬워 한다.



권오현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현대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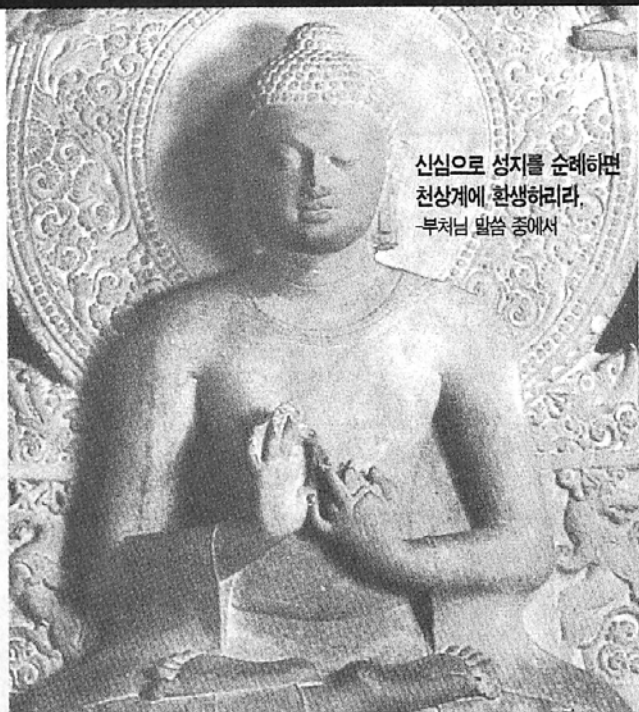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곳에...

KAL 월드투어 '95. 10. 1~'96. 2. 12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부다가야에서 -

인도 불교성지 순례 - 깨달음의 시간에 KAL 월드투어가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향기가 서린 땅 - 그 위대한 성지를 순례하고 부다가야 마하보다 대탑전에서 성도절 특별법회에 참가하는 감격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부처님 났을 중에서

서울 델리 대한항공 전세기 운항

1차 '96. 1. 24~2. 3(10박 11일) 2차 '96. 2. 2~2. 12(10박 11일)

인·도·전·세·기·성·지·순·례·일·정 ₩1,420,000

Table with flight schedules for the tour, including dates and flight numbers.

50 韓進觀光 精誠을 다하는 旅行의 名門 予約 726-5750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